

祝 辭

이미 탄탄한 학문의 토대를 구축한 중견 학자로 관악에 오신 지 22년, 이제 권영성 교수님께서 우리 대학을 떠나신다. 권교수님의 퇴임은 단지 한 사람의 교수의 떠남이 아니다. 지난해 김철수 교수님의 퇴임에 이어 권교수님의 퇴임으로 한 세대가, 한 시대가 바뀌는 것이다. 나라에 헌법이란 문서만 존재했지, 그 문서의 의미를 탐구하는 학문이 부재하던 시절, 암울한 우리의 헌법현실을 선진 외국의 법이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했던 그 세대는 우리 헌법학의 개화기를 빛낸 선각자들이었다. 권교수님은 개화기의 스타들 중에 우뚝 선 주역 중의 주역이다. 외국헌법에서 비교헌법을 거쳐 한국헌법으로 이어지는 학문적 방법론의 초석을 놓고 한국 헌법학의 실천적 과제를 정립한 업적은 오랫동안 기림을 받을 것이다.

당신 스스로 “정치적 아들”이자 “정치적 아버지”라고 명명한 헌법이다. 그 헌법의 규범과 현실 사이에서 “헌법연구를 통한 민주주의의 신봉자”로 일관되게 사는 것도 용이한 일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권영성 교수의 남다른 신념과 고집이 격랑의 세월을 지켜주었을 것이다. 선의의 학문적 경쟁조차도 인신공격으로 여겨지던 시절, 때때로 도가 지나친 결벽에 가까운 깔꼼함과 주위에 베풀기는 하되 결코 신세는 지지 않는 그 칼날 같은 매서움이 “脚注의 戰爭”의 에피소드를 더욱 다채롭게 각색했을 것이다. 그 일탈의 에피소드조차도 이제는 신화의 세계로 넘어간다. 20세기의 제 4분기 동안 한국 헌법학의 큰 별로 군림했던 권교수께서 세기의 마지막 해에 자리를 거두심도 예사롭지 않게 느껴진다.

수많은 제자를 길러 학덕을 쌓으시고, 당신 스스로 펼쳐 이룬 세계가 광대하기 그지 없다. 그가 처음 헌법 책을 쥐었을 때 헌법은 정치의 아들이었다. 그의 손길 40년, 이제 우리의 헌법은 정치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꿈꿀 만큼 성장했다. 모두가 권영성 교수를 오래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강의실에서 연구실로 주된 삶의 무대를 옮긴 대가의 만년을 지켜볼 것이다. 즐겨 오르시던 청산의 기쁨, 이따금씩 진지한 표정으로 던지시던 골계해학, 그리고 마지막 ‘흡연세대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가볍게 흘리시던 계면쩍은 웃음, 이 모든 것이 아쉽게 보내버린 세기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될 것이다.

1999년 8월 20일

法科大學長 金 裕 盛